



임실군은 지난 1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민선 6기 상반기 성과 보고 및 7월 청원조회'를 개최했다.

# “지역발전 건실한 기반 마련”

### 심민 임실군수 민선 6기 전반기 성과 보고·7월 청원 조회 주제

임실군은 지난 1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민선 6기 상반기 성과 보고 및 7월 청원조회'를 개최했다.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열린 청원조회는 심민 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 읍·면장,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전반기 성과를 되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하고 업무유공자 시상식, 소양교육 및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2년전 많은 군민들과 함께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이라는 군정방침 아래 희망차게 출발한 민선6기가 절반이 지나갔다."며, "열심히 달려온 결과 군정도 성숙되고 지역발전 청사진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건실한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16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육성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앞으로 '에코유지사업'이나 '수상 레포츠타운' 같은 종합적인 관광개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3만의 두메산골에서 1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3천500억 원 예산시대와 인구 3만명 유지, 지역 맞춤형 농업정책 개발로 농민의 실질 소득 창출에 노력하는 등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었다."며, "이러한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남은 2년 기간에도 더 큰 수확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 더욱 열심히

뛰어,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임실로 탈바꿈시켜 나가자."고 역설했다.

아울러, "민선 6기 후반기에도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 국가예산 확보, 농업인 소득증대, 임실N치즈축제 준비 등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원조회 후에는 최명옥 중로학원장의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생존전략'이란 주제의 특강과 신종섭 안보정책자문관의 '오늘 현실과 국가안보' 강의를 실시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안보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지역농가와 가공업체와 함께 베리류 등 특화생물과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 베리·바이오연, 식품산업 고부가가치화 선도

### 고창군 소재 8개 기업과 연계 신제품개발·품질개선 등 성과거둬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지역농가와 가공업체와 함께 베리류 등 특화생물과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21개 사업에 41억9000만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며 이는 전년대비 26억1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연구소는 특히 고창군 소재 8개 기업과 함께 연계해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된 10개 사업에 4억3000만원을 확보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는 특히 지역행복생활권사업과 베리소스산업육성(농림축산식품부),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사업(전북도),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전북도)과 울 상반기에 고려대학교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센터장 박현진 교수)와 업무협약을 통해 베리류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 지원에도 힘써 올 상반기 연구소에 애로기술 및 상담을 의뢰한 농가와 업체는 고창군 소재 57개소이며 신제품개발·품질개

선·제품분석의뢰·제품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92건에 대한 기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식품관련 기업과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위해 고창식품기업포럼(김재주 회장, 참여기업 16개), 고창 장류 연구회(김효심·김민선 회장, 참여기업 9개), 곤충연구회(천만석 회장, 회원 20명)를 운영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유통관련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는 고창군 베리류와 특산물에 이용한 가공업체의 해외시장 및 판로개척을 위해 기업과 함께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롯데백화점이 진행하는 국내 우수중소기업 해외관측전 '한국상품전'에 최종 선정된 30개 업체 중 연구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가공업체 '천산영농조합법인', '청맥', '전주한옥마을초코파이' 3개 업체가 참여하게 돼 해외 수출에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동안 제품개발과 특허권에 대한 기술이전도 적극 실시해 올 상반기에 복분자·홍삼 혼합음료를 고창군 지역 업체인 '사립당푸드'

와 '홍삼베리'에 기술이전해 하반기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연구소는 농가와 가공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설비 및 연구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HACCP 공동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음료 위탁생산, 베리류 및 농산물 동결건조 등 29건을 지원했다.

또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중소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60~70%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 연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이사장인 박우정 군수는 "연구소가 계속해서 베리류 및 지역특화생물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과 농가, 가공업체와 함께 동반성장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소는 10월 중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6년 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고창군민·농가·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연구소에서 추진된 성과물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고품질쌀 생산 전국 공급 '앞장'

남원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후적 조건으로 전국에 안정적인 고품질쌀 생산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시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과거 증산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한은 물론 고품질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남원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영농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 14억5천만원을 투자 7,970농가 590천포 상토를 재배별로 지원하여 못자리 피해예방 및 건조육성으로 고품질 쌀 안정 생산기반을 조성 하였다.

공통브랜드 쌀 '남원참비'를 전국적인 브랜드 쌀로 육성하기 위해 10개 단지 305ha를 선정하여 사업비 5억4백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육묘에서부터 수확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기계 구입 지원과 전문 업체의 현장교육과 컨설팅을 실시 소비자 가 원하는 쌀생산기반을 구축해 나왔다.

브랜드쌀의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확보, 남원농협과 계약재배 체계를 갖춰 재배기준에 맞게 원료곡을 수매 최고의 밥맛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도 NHQ 농협 인증쌀 11개 브랜드에 선정되어 수도권에서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대도시 소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는 공동영농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억1천만원을 투자 들녘별경영체 3개소 985ha, 특수미 생산하는 쌀 소득 안정화단지 3개소 155ha, 논 소득 다양화경영체 2개소 8개단지 660ha 육성을 통하여 생산단력과 유통 및 가공경영체가 연계된 일관화된 고품질쌀 생산 시스템을 운영해 나오고 있으며, 연내 벼 수확 후 사업별 성과를 분석 연차적으로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육묘상처리제 전 면적을 대상으로 7억원,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작기영농 지원과 농업·농촌 경쟁력 육성을 위해 농기계 구입지원에 36억8천8백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6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쌀 소득 보전직불금 271억 4천8백만원을 지원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오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 개방화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논 타작물 생산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도 600ha의 면적을 귀리, 수수, 콩 등의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박우정 고창군수 귀농귀촌 정책 소개

박우정 고창군수가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에 적극 나섰다.

박 군수는 지난 1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6 전라북도 귀농귀촌박람회'에 참석해 고창군의 맛과 멋을 알리고 군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설명하며 관심을 끌었다.

'전북도의 매력, 전북도의 경쟁력'을 주제로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이번 귀농귀촌박람회는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전라북도귀농귀촌연합회가 주관하며, 도내 13개 시군과 중앙정부, 유관기관 등 총 74개 기관이 참여했다.

박람회에서는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북 귀농귀촌정책 홍보와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열렸다.

박 군수는 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사람 찾는 토크쇼, 이장과 군수'에 완주군 박성일 군수와 순창군 황숙주 군수, 그리고 고창·완주·순창군의 마을 이장들과 함께 참여해 고창군이 전국 귀농귀촌 1번지가 된 배경과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방향, 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토크쇼에서 박 군수는 고창군에 지금까지 9000여명의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고 주민과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귀농귀촌의 시대적 흐름을 타지자체보다 먼저 예측하고 수년전부터 체계적 정책을 추진해온 것과 귀농귀촌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내실 있는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7년 도내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영농정책자금과 주택수리비, 마을 환경회 등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학교, 수도권 귀농 아카데미, 귀농귀촌멘토와 도우미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고창의 주요 농특산품인 수박과 복분자주식 및 시음 행사도 함께 마련해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군, 서울하나로물류센터 농특산물 판촉행사

순창군의 대표 농산물이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가 서울 대형유통센터에서 특별판매에 돌입해 순창농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날 30일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물류센터에서 순창 농특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촉행사에는 황숙주 군수, 한재현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장, 이두용 구립농협장, 유광희 순창군조합공회 이사장, 유광희 순창군조합공회 이사장, 유광희 순창군조합공회 이사장, 유광희 순창군조합공회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무료시식행사와 홍보행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판촉행사에서는 황숙주 군수가 직접 방문객들에게 순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는 등 지역 농산물 판매에 팔을 걷어 부쳤다.

창동하나로 마트 관계자는 "순창은 고추장으로도 유명하지만 청정지역으로 유명하다"며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가 않다"며 "앞으로 순창 좋은 만큼 이날 24일까지는 기대 이상의 판매액을 올릴 수 있을 것 같

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숙주 군수와 일행들은 전라북도에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삼환아파트에서 추진한 복분자 연합마케팅 행사에도 참석해 순창 농특산물 판매에 열기를 이어갔다.

군은 오늘 행사이외에도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 등 계절 농산물이 홍수 출하에 따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 다양한 직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군은 6월 한달동안 남서울농협 직거래 장터, 신세계 백화점 광주점 특판행사, 자매결연 지역인 서울동대문구 직거래 장터 등 직거래 행사를 개최했다. 또 7월 에도 동서울 농협직거래 장터 등 행사도 계획되어 있다.

황숙주 군수는 "지금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 등이 한창 출하되는 시기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있다"면서 "대도시 도시민을 겨냥한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확대하고 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해 순창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 관촌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

임실군 관촌자율방범대는 지난 1일 관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한성철 면장을 비롯한 각 지역 자율방범대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취임식은 정철성 대장이 임임하고 제11대 이광우 대장이 취임했다.

이광한 정철성 대장은 지난 2년간 지역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며 소외계층 봉사활동 및 각종 캠페인을 비롯해 지역행사 질서유지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선정한 베스트 방범대로 선정된 바 있다.

한성철 면장은 "이광한 정철성 대장이 기여한 공로에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의 최일선에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축산농가 가축질병 방역 추진

남원시는 여름철 장마·혹서기를 대비하여 축산농가 가축질병 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가축방역에는 소독차량 4대와 공중방역수사 및 공수의 5명을 적극 투입해 혹서기·장마철 방역·시양 관리에 대하여 현장지도도 실시하고, 읍면동을 통하여 환축 발생시 조치요령을 지도할 계획이다.

중점 방역대상은 악취방생이 많은 민가 근처 축산농가, 다중 축산시설(도축장, 축분처리업체, 사료공장)이며, 특히 수해 발생시에는 소독차량을 고정배치하여 2차적인 질병 발생을 차단할 방침이다.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해당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이상 교육 및 소독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 AI 등 가금질병 발생 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 운안면 오감만족 프로그램 운영

임실 운안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날 30일 운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신대용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장종민 의원, 기관단체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을 강구했으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들도 1인 1종목 참여를 결의했다.

또한, 면민들의 오감만족을 위해 7월부터 농악, 난타, 컴퓨터, 게이트볼 등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한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월에는 의료체조 및 웃음치료, 발 마사지 등의 프로그램도 경로당을 순회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주민건의 추진상황 보고회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날 30일 2016년 시장설명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총 112건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15시부터 2시간 동안 건의사항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발전적인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특히 건의사항 중 완료와 올해 내 추진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간략한 보고로 같음하고 검토, 상급기관 건의, 유관기관 등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

장시간 계속된 보고에도 불구하고 보고회 참석자들은 부시간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상급기관 건의 전략 등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 개진을 펼치고 열린 토론을 이어 나갔다. /남원=유영철 기자